

추밀공, 충헌공 세향 봉행



2016년 10월 16일(제3주일요일) 광복대추밀원 부사를 지내신 추밀공과 은청광록대부 상서도성 좌복야 상장군으로 추증된 충헌공의 세향이 10시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 소재한 추밀공 단소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경향각지에서 모인 250여명의 파친들은 8시30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관광버스2대에 분승하여 전진교 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한시간을 이동하였다. 권영민국장의 집제 안내를 시작으로 권경석 추밀공과 대종회회장의 인사와 함께 세향은 집전관의 낭랑한 목소리로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추밀공으로 권영선 대한상문화회장, 아헌관 권오갑, 종헌관 권승열 종인 순으로 분향, 헌자, 재배하였다. 이동 재배한 후 단소 아래에 위치한 아드님 충헌공 단소로 이동하여 세향을 올렸으며 추밀관 권기준, 아헌관 권태근, 종헌관 권효연 파친 순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제례가 끝난 후 일동은 단소 아래쪽 공터에 마련된 현

장 방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고 아침부터 흐리던 날씨는 비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하여 서늘러 식사를 마치고 일행은 귀경길에 올랐다.

추밀공세향에 대한 감사말씀

10월 16일(제3주 일요일) 광복대추밀원 부사를 지내신 추밀공과 세향에 파친 250여명이 참여하여 봉행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향에 헌성해주신 파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성명단

- 추밀공 초헌관 권영선 1백만원, 아헌관 권오갑 30만원, 종헌관 권승열 20만원 **계150만원**
- 충헌공 초헌관 권기준 50만원, 종헌관 권효연 10만원 **계 60만원**
- 중중헌성금**
- 정간공중중 권의철30만원, 참의공중중 권박원30만원, 매헌공중중 권순호30만원
- 석주공중중 권오중20만원, 목사공중중 권우식20만원, 대사헌중중 권영환10만원 **계1,150,000원**
- 총계 6,050,000원**

문중공중중 권오돈10만원, 창화공중중 권병선10만원, 정헌공중중 권준식10만원, 제간공중중 권영상10만원, 중방공중중 권태경10만원, 통덕랑중중 권영갑10만원, 저계 중중 권중달10만원, 흥성중중 권태경10만원, 연천중중 권희림10만원, 진악 중중 권오민50만원 **계2,800,000원**

개인헌성
서울 성북 추밀공과권경석회장 20만원, 영등포 권영갑부회장 20만원, 용산 권영의부회장 10만원, 경기도양 권혁찬부회장10만원, 김포 권병길부회장10만원, 전북전주 권태평부회장 10만원, 충남홍성 권태정부회장10만원 서울금천 권영주부회장5만원, 경기도양 권용주부회장 5만원, 영등포 권오준 중무위원5만원, 전북김제 권영환중원5만원, 서울은평 권기동파친 5만원 **계1,150,000원**
총계 6,050,000원

추밀공 단소 계단공사 완료



추밀공과대종회(회장 권경석)는 지난 9월30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소재 추밀공단소의 추밀공, 충헌공 향사를 마치고 파친들이 내려가는 급경사지 약 50m에 계단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비용은 총 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화천기공의 권영렬회장이 200만원, 대한상문화 권영선회장이 100만원, 그리고 회

장이 100만원을 후원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강하 부력을 쌓고 기단부에 몰탈로 고정하였다. 이로써 연로하신 파친들이 미끄러지는 급경사지를 내려가는데 한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으로 향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추밀공(樞密公) 휘 수평(守平)은 고려

명종 연간에 출생하여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이르렀고 은청광록대부(銀青光祿大夫)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상장군(上將軍)으로 추증되었다. 종원은 안동 권씨의 1/3인 약 3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추밀공의 묘소는 장단의 천마산아래 백자동에 있었다고 하나 실전되었다. 대종회는 1993년 추밀공 단소의 설단 공원이 일어 추밀공설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삼년간 모금하고 부지를 물색함에 1994년 충북 음성 문충공 묘역, 경기 양주 매현공 묘역 등을 답사하였으나 정월(正穴)을 찾지 못하다가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현암(玄巖)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휘 복추밀공(7대손) 묘역 후복에 관대성 풍수지사가 찾아내었다. 동년 2월 권영찬회장과 화산부원군중중의 권신욱, 권이현, 권순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화산부원군 중중에서 왜그 그 부지를 제공기로 하여 설단지로 확정하고 1996년까지 3억6천만원을 모금하여(권승관고문, 권달안고문 각 5천만원) 11월17일 추밀공, 충헌공 설단 준공하였다. 추밀공 신도비는 묘역 입구 100평 부지에 대전 참의공중중에서 헌성, 수감하여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청·장년회 2016년 정기총회 및 제23주년 기념회 개최

안동권씨 서울 청장년회 정기총회 및 창립제23주년 기념회가 10월13일 오후 7시 서울서초구 청담영양센터에서 열렸다. 권순용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권승호 회장의 개회선언 후, 애국가제창 시 조모 망배에 이어 권오복 전 안동권씨 홍보 편집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권오복 전 대종원 편집장은 년간 대종원 홍보업무를 하면서 열성적이다.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하여 종친간의 친목도모와 권문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엔 서울 청장년회로부터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서울 청장년회는 1993년도에 서울 청장년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동년도 10월 16일에 청라리 흥릉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회장에 권영삼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고 매년 시조 추향제에 참석함과 동시에 안동권씨 청장년회추최 전



국제전에 참석키로 결의한 이래 제 10대 승호회장에 이르기까지 매월 정기모임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대종원의 행사에 적극

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해 오고 있다. 감사패 증정에 이어 순용국장의 지난 회계연도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다.

• 동정

안동권씨대종원 수석부총재 권계동 총재 직무대행

2016. 10. 18. 오전 11시 안동권씨대종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긴급운영위원회의에서 권계동 총재가 총재 사퇴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자 대종원정

관계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계동 수석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권계동 총재직무대행은 35세이고 북아공과이며, 45년간 교육계



에 봉직하다가 1999년 교육장을 끝으로 퇴임하여 오늘까지 문사에 봉사하고 있다.

권여선(소설가) 제 47회 동인문학상 수상

소설가 권여선(51·경북안동)씨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 (창비 펴냄)가 2016년 제47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동인문학상 심사위원회(김화영 김인환 오정희 정과리 구효서 이승우)는 지난 15일 최후심을 열고

권여선씨를 수상자로 뽑았다. 수상작 '안녕 주정뱅이'는 불행한 '술꾼'들을 제각각 그린 단편 소설 7편을 통해 우리 시대의 절망을 다루며 구원의 길을 모색한 소설집이다. 심사위원회는 "권여선의 '안녕 주



정뱅이'는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철저히 밀고 나갔다"면서도 "작가는 절망을 말함으로써 위는 이에게 해방의 길을 찾도록 부추킨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교원대 전 총장 권재술 영애 전통 혼례식 올려

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재술 물리학박사의 입택식과 영애(권주아 양)의 전통혼례식이 2016년 10월 16일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관미대)소재 신축 자택에서 성대히 열렸다. 오전11시에 시작하여 신랑 제이슨 에릭 존스(미국)의 입장을 시작으로 300여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0분의 전

통혼례식이 진행되었다. 축사는 청주대 김법기박사, 임성민박사, 권병윤 영덕군 중진회장이 하였다. 권재술 축친은 태사공35세, 부정공 25세, 입학조 오봉공 휘 책의17대손이다. 입학조의6세로서 대은공의 12세가 권재술 축친이다. (안동지사 권혁세)



권율장군묘소 반려금지 안내판 설치

지난 9월 정구 산행때, 권율장군 묘소 경내에 반려견 (개) 배설물이 있어 이를 관리 차원에서 반려견을 출입 못하도록 관할 관청 양주시청 문화재 담당에게 건의하여 사진과 같이 제작 설치하였다고 한다.

담당자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하지만 권율 장군의 후손으로서 다들스러움을 느끼며 양주시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담당자 연락처(010-2489-0876) 양주시청 문화재 관리과 (최 동 호)



讀者投稿

宗報編輯人에게 묻습니다

문: 우리나라가 解放과 同時 言論이 兩後竹筍으로 發行될 때 政府機關紙라고 일컫는 서울신문은 洞長, 統長, 里長, 班長, 國家機關의 主事급 以上에게는 有價지인지 無價지인지는 몰라도 配送하면서 發行부수의 1위를 차지한 것이 70년대까 지인 것 같습니다. 壓縮經濟開發에 의한 國家의 發展과 民衆의 教育的, 社會的, 政治的 水準이 높아 국가(정부)정책의 분석 및 批判記事의 比重이 많은 朝, 中, 東 新聞이 國民의 絶對的 購讀紙로 사랑을 받고 서울신문이 發行되는지도 모르는 오늘의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0여개의 姓氏가 있으나 紙面이 작고 크고, 부수가 많고 적고의 差異는 있으나 70여개의 姓氏가 000氏 花樹會報, 000氏 宗報란 이름의 月刊, 季刊으로 發行됨을 봅니다. 우리 宗報도 始祖님의 恩德을 바탕으로 後孫들의 德目을 넓히고 和合을 도모하는 役割로 發行 한 것이 40여년의 年輪이 넘은 길로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最近에 이르러 우리 宗報는 宗中代表님의 의의가 많이 반영됨을 느끼면서 宗報는 後孫들의 많은 意見이 相互 批判할 수 있는 코너를 찾아볼

수 없고 아주 封鎖하는 것 같이 編輯人의 姿勢가 問題인지 기자들의 姿勢가 問題인지 疑問을 갖습니다. 제1회 宗報編輯委員會 토의 시 최근 發行부수가 많이 줄어 4천여부라고 아쉬워 하면서 發行당시의 부수대로 독자배가 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論議 중 權伍信委員께서 宗報의 中立性和 公評성에 더 接近하여 記事內容의 多變化에 充實하여야 한다는 말에 積極的인 讚辭를 보냅니다. 유감스럽게도 타 宗中들로 부터 嘔吐(빈축)를 사면서 中央宗親會와 大寺院이 싸움과 法廷鬭爭을 거쳐 統合한 후 지난 해는 우리 宗中으로는 제일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 年間 維持되어 온 始祖님의 享祀 일을 출다는 핑계로 下丁으로 바꾼 일을 全國壽社年會의 佛敎의 概念으로 볼 때 始祖님을 凌辱하는 것으로 絶對로 受用할 수 없으니 原狀回復를 大寺院에 要求하여 1년만에 原狀回復됨은 참으로 多幸한 일입니다. 이들의 뜻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權凝效님을 비롯한 權海玉, 權寧翼님 등께서 始祖님 祭禮 正常化推進委員會를 만들어 종친과 같이 中丁日에도 150여 後孫들이 모여 祭禮를 올리고(佛敎의 理念



에서는 많은 後孫들이 여러번 祭禮를 올려도 좋은 것으로 전래됨) 祭禮일을 還元하는데 獻身的으로 努力하신 일이 宗中 歷史에 記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다름 시 後孫들 간 多樣한 일들이 있었으나 記者들의 團合인지 編輯人의 고집인지는 몰라도 많은 後孫들은 모르고 지나갔으며 여기에서 宗報가 어떤 役割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宗報의 購讀者배가운동, 豊富한 內容개발 등의 論議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宗報 위인들, 編輯人, 記者 등이 客觀的자세로 임해 讀者들의 記事內容이 풍부하여 경쟁적으로 購讀할 수 있는 宗報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編輯人의 答辭를 기다려 봅니다. 투고자 : 安東權氏安東宗親會 權宙衍 (2016.9.21.)

답: 평소 종문의 일에 노심초사하시는 권주연 회장님의 원려에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신에 답합니다. 宗報(宗報)는 안동권씨들의 얼굴이면서 종사(宗史)입니다. 宗報는 안동권씨 대종원의 종시(宗史)를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시 : 崇祖理想확립, 愛族思想 高취, 後學啓導기여, 社會倫理 배양) -1, 2, 3번에 대종원을 비롯한 해외, 전국 종친들의 활동과 소식을 신속히 전하여 시조님을 비롯한 열선조님들의 훈업을 계승하고 권발하여 종친간의 우의와 화합을 도모합니다. -4, 5번에는 전통사상과 선조님들의 학문과 사상을 연재하여 종민보화학과

후학계도에 기여합니다. -6, 7번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각 분야와 위치에 있어 활동하는 종친들의 각고의 활동을 보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權門像을 추구합니다. -8번은 교육, 취미, 여행, 광고 등의 기사를 통해 정서와 교양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부하는 권문을 지향합니다. 편집과정의 흐름 기사수집(종보발송후 즉시)-기사분류 및 교정, 보완-기획(년중수시)-종보시안 결재, 교정 및 재결재-최종원고 제출력(인쇄소)-종보위원3-4인 참석하여 교정(오타자)-인쇄공정전 최종확인 및 승인-인쇄, 대중매체송-구독자 주소분류 및 포

장-우체국발송 -종보발행은 일반신문과 달리 상호, 비판 보다는 대종원 정관 종보편집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청·장년들의 의견수렴 등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종중대표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사는 정치적 내용은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내에서 다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조추향은 2014년도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9월하정에 실시하였으며,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추향제 기사는 시기적으로 게재가 어려웠으며 2016년 정기총회에서 추향제를 10월 중정으로 환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종보 편집인